



## 업계, 육종사업

# 무너질까 큰 우려

김용화 편집부장

**한** 국 양계산업의 선두주자로 군림해 왔던 천호그룹이 경영악화로 부도를 냈다. 지난 10월2일에 천호인티그레이션(주)에 이어 5일 천호부회장, 마니육종이 연쇄적으로 각각 부도를 내면서 양계업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천호그룹의 이계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왜 부도를 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부도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에까지 이를 정도로 예측이 난무하였다.

부도는 단순히 자금이 없어 냈다는 것으로 일축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양계업에 몸담아 오면서 키워 온 천호그룹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겠느냐는 반문에는 좀더 시간이 경과해야 정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천호그룹이 양계업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도 크다. 우선 계열화사업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84년에 천호인티그레이션을 설립하여 한국에 본격적인 계열화 사업을 심어오면서 선구자로서의 위험부담을 늘 안고 왔다는 것이 이번 부도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수입개방을 앞두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는 물론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지원까지 하여 정착시키려고 하는 계열화사업에 천호인티의 부도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 ○ 천호그룹의 배경

천호그룹 전체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니다. 현재 천호그룹은 천호인티그레이션주식회사, 천호부회장, 마니육종, (주)천호무역, 송봉축산연구소, (주)천호부회장(대구), (주)나이스유통, P.L, G.P.S, P.S 농장 등이 모인 그룹이다.

이중 천호인티와 부화장, 마니옥종이 부도가 났다. 그외 사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모그룹의 부도로 자금 압박을 받을 경우 연차적인 부도의 가능성도 높에 나타나고 있다.

천호인티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백50억 원대로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폭이 커져 부화장이 떠받들고 오는 경영을 계속해 왔는데 금융실명제 이후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끝내는 부도를 낼 수 밖에 없었다는게 구사대책 위원회의 말이다.

### ○ 부도경위

천호그룹의 부도를 놓고 축협이 국정감사를 받을 때 고의적인 부도가 아니었느냐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으나 실제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주인 이계조 회장만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난 9월27일에 20여억원의 어음을 결제한 것으로 보아서 고의적인 부도설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또한 30년이란 일평생을 바쳐서 가꾸어온 자신의 기업을 창업주 자신이 부도를 고의로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흑자부도란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융권이나, 채권단 또는 경영주인 이계조 회장 등이 공식적으로 부도액을 발표한 사실이 없어 그저 추측으로만 부도액을 계산해 내는 정도이다.

마지막까지 경영에 참여했던 한 고위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천호의 총 부도액은 400억원 대이며, 이회장의 자산규모는 공시지가로 600

억원대가 되어 사실상 모든 것을 정리하면 사태수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금융기관에서도 부도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출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채권자들은 사채업자를 빼고 대개 사료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축협이 40억원대, H사료 20억원대, M사료, P사료, Hy사료, D사료 등으로 이들은 구사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채권단을 구성하지 않고 이들 중 몇몇 업체가 인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 ○ 천호그룹 경영분석

천호그룹은 인티를 빼고는 거의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이 무질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도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분석하면, 1. 인티의 경우 거래처 관리가 부실했다. 2. 천호그룹의 조직관리가 미숙했다. 3. 경영을 전문화시키지 못했다고 나타나는데 경영을 전문화시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거래처 관리가 부실해지면 책임자를 문책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2억원 이상의 손실이 초래되어 10여년간 총 20억원 이상을 낭비했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어음결제일이 6개월이 넘으면 자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생력이 불가능해지는데도 천호인티는 '87년부터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대로 위기때마다 부화경기가 호전되면 틀어막기식으로 지탱해오다 금년의 부화업경기가 침체되고 실명제로 자금동원이 안되어 결

국 부도를 냈다는 결론이다.

추가하여 인티의 대리점이 속속 부도를 냈고 일부 대리점과의 유대가 좋지 않아 추석전날 의정부 북부대리점이 의도적으로 어음을 거래 은행에 넣어 부도가 났다는 후문도 있다.

### ○ 부도 이후 움직임

부도를 낸 이계조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지난 10월15일 구성된 인티의 노조위주 비상대책위원회와 부회장, 마니육종의 구사대책위원회에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11월까지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두 대책위원회가 몇개월 이상을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 이계조 회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여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대책위원회가 내건 목표도 경영주는 바뀔지라도 양계업계를 위해 천호그룹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니육종인 것이다. 인티는 계열주체가 많고 신규로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도 있어 어쨌든 일부 종계장과 부회장, 도계장은 인수를 해갈 가능성이 있지만 육종을 하는 비수익성 사업인 마니육종은 인수 대상에서 찬밥신세가 되면 매일 사료비만도 엄청나 결국 천호가 심혈을 기울여 온 육종사업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다.

### ○ 천호그룹의 가상 수습방안

천호그룹의 수습책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계조 회장이 어쨌든 자금을 동원하여 정상가동

시키는 것인데 실제 이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중론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은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채권자인 사료업체나 축협이 천호를 공중분해 시키지 말고 통채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부도 전 천호는 몇몇 업체와 700억대에 인수방안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말의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인티와 마니육종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안도 있다. 가장 유력시 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는데 이경우 마니육종이 난관에 부딪칠 수 있어 육종사업은 축협이 인수해야 한다고 업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축협은 계열화사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고 타 가축의 육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육종사업 자체가 투자사업인 만큼 종계개량을 위해서도 축협이 직접 인수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다른 계열주체를 설득하여 법인체로 정상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의미가 있다.

육종농장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순계를 포함해 종계가 700,000수인데 수당 5천원씩 계산해도 35억원대 자산이 노계로 끝난다면 막대한 국가적 차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구사대책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점이다. 그래서 축협이 적극 나서서 육종사업을 해야 한다고 탄원서까지 낸 것이다.

구사대책위원회는 부회장은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 병아리 공급은 계속 된다고 밝히고 있다. 9월 기준 60% 이상의 병아리가 생산되고 있어 닭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양계업 발전을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어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양계**